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鄭 恩 雨*

차 례

I. 머리말	III. 高麗前期 對中交涉과 외래요소의 수용
II. 高麗前期 傳統樣式의 繼承과 變形	1. 遼와의 對外交渉과 遼양식의 수용
1. 統一新羅 조각 전통의 계승	2. 宋과의 對外交渉과 宋양식의 수용
2. 三國時代의 북고양식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의 시대 구분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1231년 강화도 천도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분류하였다. 즉 고려전기는 10세기에서 12세기 전반경까지로 이 시기 금동보살상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전기의 불교조각은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난점은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믿어지는 불상들의 양식적인 분석을 통하여 前代의 불상과 연계된 전통적인 요소라든지, 중국불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고려전기 불교조각 연구는 주로 여래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래상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고려의 불교사회 및 신앙적인 면과 교리적인 배경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보살상은 남아있는 예도 적고 출토지역이 확실한 상도 적지만 시대적인 양식 변천이 잘 반영되기 때문에 그 계보를 밝히기가 쉬운 편이다. 특히 금동불은 이동이 쉽기 때문에 당시의 양식이 잘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전기의 금동보살상 연구는 고려전기 불교조각의 가장 큰 문제점인 당시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앙양식의 규명에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금동보살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주로 양식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계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형인데 이를 다시 통일신라에서부터 계승되는 전통양식과 삼국시대 전반기의 복고 양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번째 유형은 宋이나 遼 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식의 유입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순서는 시간적인 차이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인 양식적 변천과정과도 대략 일치한다.

II. 高麗前期 傳統 樣式의 繼承과 變形

고려전기의 금동보살상은 前代부터 형성된 전통양식을 계승하면서 변형되는 작품들이 다수 전한다. 그 중에는 통일신라로부터 이어지는 보살상 양식과 연결되는 상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삼국시대의 보살상 양식과 연결되는 복고양식을 가진 상들도 몇 구 있어 주목된다. 두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統一新羅 조각 전통의 繼承

고려전기의 보살상중에서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작품들은 크게 입상과 좌상으로 나눌 수 있다. 입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銅造菩薩像과 일본 야마구찌현의 滿願寺 소장의 금동보살입상 그리고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입상이 있고, 좌상은 충남 당진에 있는 靈塔寺 금동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과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이 있다. 이 보살상들은 넓게는 같은 유형에 속하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銅造菩薩像(圖 1)과 일본 山口(야마구찌)縣 만원사 소장의 金銅菩薩立像은(圖 2) 불에 타서 두 상 모두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으나 양협시보살로 조성된 듯 유사한 양식을 보여 줘 흥미롭다. 滿願寺 금동보살입상은 불에 타서 보관과 오른손, 대좌의 일부등이 파손되어 원래의 모습은 아니며 사선으로 기울어진 얼굴도 불에 타서 변형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보살상도 보관과 두 손, 허리 아래 부분이 없어서 입상인지 좌상인지 자제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두 상은 수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도상 및 세부적인 특징이 거의 똑 같으며 상의 크기도 거의 비슷하다. 즉 만원사 보살상은 상의 높이가 51.6cm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보살상은 현재의 높이가 42cm로 없어진 다리 부분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여 협시보살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圖 1. 銅造菩薩像, 高麗,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1-1. 銅造菩薩像의 보관

만원사 금동보살입상은¹⁾ 살 찢 통통한 얼굴에 좁은 어깨를 하였으며 얼굴에 비해 몸이 짧은 短軀形이다. 보관은 불에 타서 윗부분이 없어졌지만 하단부에 연주문과 인동문을 정교하게 장식하였다. 긴 귀에는 넓은 줄무늬 머리카락이 새겨진 한가닥의 보발이 돌려져 있고 가운데가 돌출한 작은 원형의 귀걸이를 걸쳤다. 턱부분에 살이 많은 통통한 얼굴에는 길게 선각된 눈과 짧은 코, 작은 입이 가운데로 모아져 있다. 띠주름같이 넓은 삼도가 있는 긴 목 밑에 세줄의 고리형 수식이 달린 목걸이를 걸었고 그 좌우로 가늘고 긴 영락이 몸 양옆으로 길게 흘러내려 발에 닿아 있다. 팔뚝과 팔목에 세 줄의 띠가 있고 그 밑으로 목걸이와 같은 고리장식이 달린 팔찌를 차 변화를 주었다. 어깨에는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적인 대각선 천의를 입었다. 아랫배는 유난히 볼록 튀어 나왔으며, 두 다리 사이로 두 개의 리본이 달린 띠 매듭이 흘러내렸다. 광배는 없어졌고 양.북련의 연판 아래 8각면의 기단으로 이루진 대좌위에 서 있다.

턱 부분에 살이 많은 통통한 얼굴에 긴 목, 좁은 어깨, 대각선의 천의, 고리형의 3줄 목걸

1) 만원사 금동보살입상은 山口縣立美術館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국내에는 처음 알려졌는데, 전시회 도록의 도판 해설에 따르면 毛利元就의 염지불로 전해진다고 하며 비로자나불좌상의 협시보살로서 고려전기의 작품풍을 모방한 고려후기의 模古作으로 추정하였다. 『高麗·李朝의 佛教美術展』(山口縣立美術館, 1997), 도 52 도판해설 참조

이와 그 양 옆으로 늘어진 긴 영락 등으로 요약되는 만원사 보살상의 특징들은 협시보살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동조보살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더우기 입술의 위 아래에 파여진 종선의 흠이라든지 아래턱에 새긴 둥근 선각, 정교한 꽃 장식이 조각된 보관등의 세부 모습까지도 비슷하다. 인동문과 그 사이에 활짝 핀 꽃들 그리고 작은 연주문이 둘러진 아름다운 보관은(圖 1-1) 이 두 작품 이외에는 알려진 예가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남아 있는 金銅寶冠과 연주문과 인동문 사이에 핀 연꽃들의 구성에서 비슷하여 같은 계통의 작품으로 추정된다(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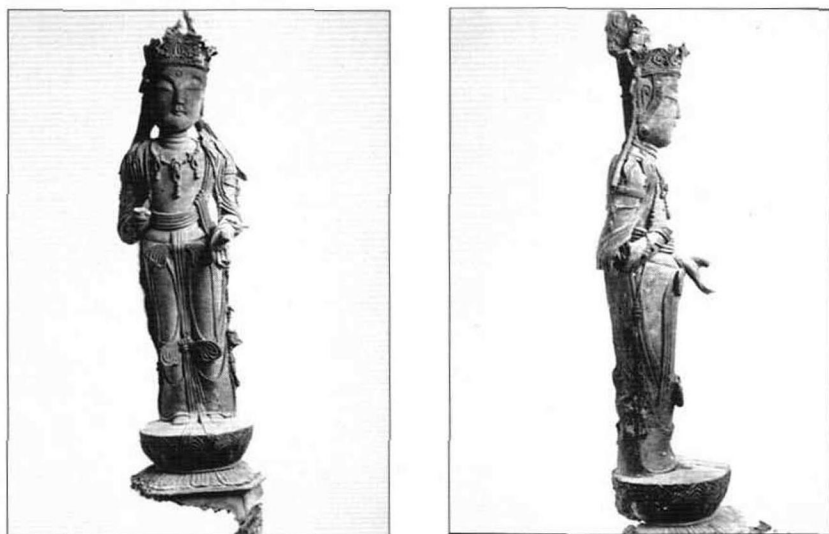


圖 2. 金銅菩薩立像의 정면과 측면, 高麗, 일본 山口縣 滿願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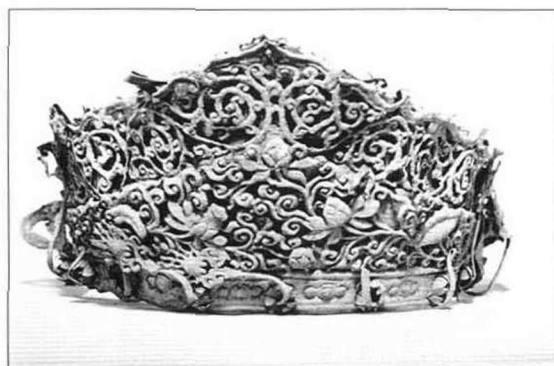


圖 3. 金銅寶冠, 일본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조보살상은 만원사 보살상과 같이 원래 입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없어진 허리 아래 부분을 비롯한 전체적인 모습의 복원도 가능해졌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살상이 보관 밑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의 표현을 큼직하게 새기고 허리에는 裳衣 위로 고리형의 수식을 단 반면, 만원사 보살상은 마치 문양처럼 촘촘하게 머리카락을 선각하였고 허리에는 수식이 없는 세부적인 작은 차이는 느껴진다.

이 보살상들은 일반적인 통일신라적인 8-9세기의 양식들이 강하면서도 변형된 모습을 보여 준다.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천의는 통일신라의 보살상에서는 보편화된 특징인데, 사선이 아닌 중간이 굽으면서 각을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점은 이 유형에 속하는 고려전기의 보살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고려적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상의를 묶은 띠매듭이 두 개의 리본을 만들며 발까지 길게 늘어지거나 아랫배가 부른 모습도 중국에서는 895년명(順天元年)靜雅堂소장의 대리석보살입상(圖 4)과 같이 당 말기의 보살상들에서 보이는 요소로서 唐代의 8~9세기적인 요소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특징이 잘 반영된 부분은 얼굴이다(圖 5). 살찐 얼굴에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 짧은 인중에 작은 입, 인중과 입 밑에 파인 종선의 흠, 중심으로 모인 듯한 느낌의 얼굴 표현은 고려초기의 철불과 금동상 그리고 한송사지 석조 보살상등(圖 6)에 많이 표현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10세기 이전일 것이라는 대체적인 편년을 짐작 할 수 있다.



圖 5. 銅造菩薩像과 金銅菩薩立像의 얼굴, 高麗



圖 4. 石造菩薩立像, 唐 895년, 靜雅堂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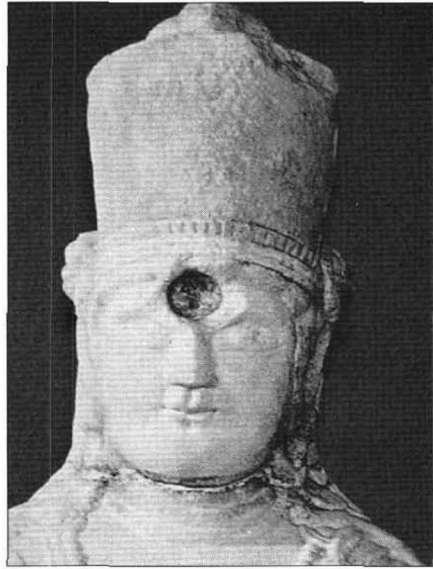


圖 6. 寒松寺址 石造菩薩像, 高麗, 國立中央博物館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동조보살입상도 같은 형식에 속하는 작품이다(圖 7). 옆으로 길게 선각된 눈, 인중과 턱에 새겨진 종선, 대각선 천의에 중간이 굽었거나, 천이나 상의를 묶은 매듭에서 흘러 내린 리본으로 묶어 장식한 긴 띠매듭, 세 줄로 늘어진 목걸이, 굵고 긴 목에 좁은 어깨등은 위에서 언급한 상들과 공통된 특징이다. 만원사 보살상이 직립 자세와 딱딱한 표정에 정교한 세부장식이 특징인 반면, 동국대 보살상은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왼쪽다리를 살짝 구부린 자세에 가늘게 선각된 눈과 입술은 미소가 배어 나올 듯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상이다.

이 형식의 보살상들의 대좌는 양, 복련 또는 복련의 연판 아래 8각면의 기단이 있고 그 안에 안상을 새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圖2, 7). 연판과 8각면으로 이루어진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는 흔한 형식으로, 潤松美術館 소장인 보물 284호인 금동불입상(圖 8)과 719년에 조성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여래입상,²⁾ 그리고 獐項里寺址 石造臺座³⁾

2) 姜友邦,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대원사, 1995), pp. 271~276 참조.

3) 이 석조대좌는 경주국립박물관의 정원에 전시되어 있는 장항리불입상의 대좌로 원래의 사지에 탑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감산사 대좌와 비슷하지만 상단과 하단사이에 팔각의 중대석이 끼어 있고 하단부의 팔각의 안상속에 호법신들이 조각되어 있어 복잡하고 화려하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지에 남아 있는 대좌의 높이는 150cm이며, 광배와 불상을 복원한다면 광배 430cm에 불상은 350 ~ 400cm사이로 추정되는 대형 불상으로 주목된다. 대좌의 세부 실측과 세부 모습은 정우택, 김익준, 『토함산지역 불교조각 조사연구』,

에서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대좌의 특징은 上臺보다 8각의 下臺가 더 높고, 연판 안에 꽃을 새기기도 하며, 연판안은 활짝 핀 모습에 유연하고 볼륨이 강하게 표현되어 입체적이고 불신에 비해 대좌가 높고 넓어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에 비해 고려전기의 대좌는 하대보다 상대가 높고, 연판은 거의 선각으로 새겨져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지며 연판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등 시기적인 변천에 따른 양식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圖 7. 銅造菩薩立像, 高麗, 東國大學校 博物館



圖 8. 金銅佛立像, 統一新羅, 潤松美術館

최근에 같은 형식의 대좌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앞 공양보살상이 앉은 위치의 지하 1m 아래에서 발굴되었다. 양련과 복련의 연판 아래 8각면의 하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려전기의 작품이다(圖 9). 월정사의 8각9층석탑은 1층탑신과 5층지붕에서 발견된 사리장치의 내용이나 탑의 형식상 10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더욱이 중창을 한 인물로 고려 초 信義頭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를 梵日의 문인이었던 行寂(832-916)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 따라서 조성연대는 적어도 10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다른 보살상의 편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대좌 형식은 경남 咸安 大山里 석조보살입상에서 볼 수 있

『吐含山地域 佛教遺蹟 調査研究』(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000), p. 23 圖3-15 참조.

4) 강순형, 「월정사 寶塔(8각9층) 사리장치 특징- 全身舍利經에 따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종합적 검토』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2000. 10), pp. 65-77.

5) 강병희, 「文獻으로 본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종합적 검토』 (2000.10), pp. 25-27.

듯이 대좌가 작아져 불안정한 모습에 도식화된 연판으로 조각 솜씨는 떨어지지만 후대 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前代の 양식을 계승한 고려전기의 보살상에는 입상들 외에 좌상도 몇 구 남아 있다. 충남 당진군 靈塔寺 金銅三尊佛像의 협시보살 좌상(圖 10)과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金銅菩薩坐像(圖 11)은 자연스럽게 늘어진 보발에 이마에



圖 9. 石造臺座, 高麗, 강원도 월정사

남아 있는 백호라든지 띠처럼 새겨진 굽은 삼도, 중간이 굽어진 대각선 천의, 원형 장식이 달린 3줄의 목걸이, 큰 리본으로 묶은 裳衣 띠매듭등 기본적인 양식은 앞의 보살입상과 같다.



圖 10. 靈塔寺 金銅三尊佛像중 협시보살 좌상, 高麗, 충남 당진



圖 11. 金銅菩薩坐像, 高麗,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6) 함안 대산리 불상의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1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國寶 - 石佛-』 (예경, 1985). 圖 130, p 120.

그런데 옷에 가려진 두 보살상의 팔각형과 원형의 대좌 위에는 반 마름모꼴을 이루고 있는 규칙적인 수직 옷주름이 늘어뜨려져 있다. 대좌 위로 늘어지는 일종의 상현좌 같은 옷주름은 고려전기로 추정되는 보살상에 간혹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唐代에서부터 宋, 遼代의 불, 보살상에 이르기까지 흔하게 나타나는 요소로서 통일신라 보다도 고려전기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외래적인 영향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살상들은 통일신라적인 전통을 반영하면서도 고려초기의 양식으로 성립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은 보살상들이다. 입상들은 10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사의 시작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좌상들은 전통적 양식을 지속시키면서 새로운 요소도 다소 반영하고 있는 예로서 입상 보다도 다소 늦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三國時代의 복고양식

前代의 전통을 계승한 두 번째 유형은 삼국시대 7세기의 양식이 재현되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가진 작품들로서 복고 양식으로 명칭하였다.

東京大學 文學部에는 統和 28년 金銅菩薩立像 세 구가 소장되어 있다(圖 12).⁷⁾ 세 구 모두 대좌 뒷면에 “統和二十八年 聖居山 天聖寺”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1010년에 성거산 천성사라는 절에서 조성된 상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의 통화28년은 1010년에 해당하는 遼代 聖宗의 연호로서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遼代의 상으로 인식되어 왔다.⁸⁾ 그러나 성거산은 중국에 그 명칭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 이름이 많이 전한다. 그 중에서 황해도 牛峰縣과 충청남도 稷山縣에 있었던 성거산일 가능성이 있는데, 11세기전반기인 顯宗代(1009-1031)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충남 직산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⁹⁾

세 구의 보살상은 크기가 각기 68cm, 38, 39cm로 다르고 얼굴의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도상과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8cm 보살상은 미소가 있는 부드러운 얼굴인 반면, 나머지 두 보살상은 어린아이 같은 귀여운 인상을 준다(圖 12-1, 2). 보관에는 화불이 있고 두 손에는 연봉우리와 정병을 들고 있어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상체는 목

7) 통화28년명 금동관음보살입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에 이미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양식적인 특징만을 다루었다. 鄭恩雨, 「東京大學 文學部소장의 統和 28年(1010)銘 金銅觀音菩薩立像」, 『美術史論壇』 11호(한국미술연구소, 2001).

8) 松原三郎, 「宋元彫刻しこ 系譜: 特に 菩薩像について」, 『國華』 第七拾編 第八冊, 通卷 833號(1961.8), p. 351, 挿圖 9 참조.

9) 鄭恩雨, 앞의 논문, 『美術史論壇』 11호(한국미술연구소, 2001) 참조.

걸이를 빼면 거의 나형이며, 연결된 두개의 U형 밑에 각기 줄이 길게 달린 큰 목걸이를 가슴 전면에 걸쳤다. 목걸이와 별도로 허리 밑에서 수직선으로 길게 내려오는 영락은 상의에 밀착되어 치마 장식처럼 보인다. 천의는 허리 밑에서 시작되어 X형으로 교차하면서 양 팔 밑으로 길게 흘러내렸으며 뒷면에는 어깨에서부터 U형으로 길게 내려오는 천의를 걸쳤다. 裳衣는 삼각형으로 약간 벌어져 내려오면서 직선의 곧은 주름이 잡혀 있고 끝단에는 Q형의 주름이 일정하게 잡혀 있다.



圖 12. 統和 28年銘 金銅菩薩立像, 39cm, 高麗1010, 東京大學



圖 12-1. 統和 28年銘 金銅菩薩立像, 68cm 高麗 1010, 東京大學



圖 12-2. 統和 28年銘 金銅菩薩立像, 38cm 高麗 1010, 東京大學

전체적으로 미소를 머금은 듯한 부드러운 표정과 달리 좌우 대칭적인 구조와 당당한 가슴 각이 지고 딱딱한 도식화된 주름등에서 단순한 조형감각이 느껴진다. 통화28년명 금동관음보살상의 무릎에서 X형으로 교차하여 양 팔에 걸친 다음 마치 지느러미 처럼 양쪽으로 뻗치면서 흘러 내려오고, 뒷면은 U형으로 허리부분 까지 길게 늘어지는 천의의 표현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전 거창 출토 금동보살입상(圖 13), 국립공주박물관 소장의 공주 의당면 출토 금동보살입상, 부여 舊衙里 출토의 남석제보살상 좌편등 삼국시대 7세기의 보살상이 입고 있는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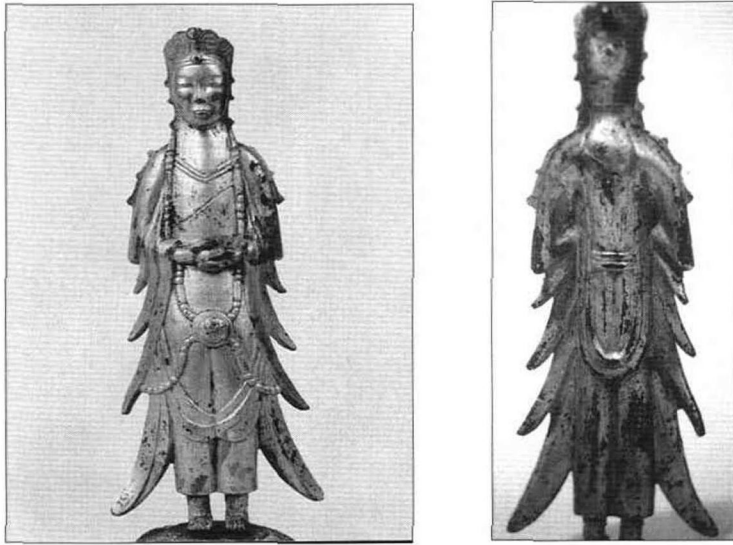


圖 13. 傳 居昌 출토 金銅菩薩立像, 三國시대 7세기, 澗松美術館

천의와 매우 비슷하다. 7세기 보살상과의 유사성은 裳衣의 뒷면에서도 감지되는데 주름을 편평하면서도 각이 지게 조각하거나 끝단에 Q형의 주름을 잡는등 도식적으로 처리한 것도 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부여 天王寺址에서 출토된 7세기의 백제 보살상에도 보이는 고식적인 표현의 하나이다(圖 14). 다만 뒷면의 U형 천의가 허리선에서 짧게 끊어지고 양 어깨밑과 상의 위 아래에 여러개의 Q형 주름을 잡는등 장식적이고 복잡해지는 경향에서 시대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통화28년명 보살상의 독특한 특징은 몸에 걸친 목걸이와 영락 장식이다. 두 개의 U형이 연결되고 그 밑으로 줄이 길게 달린 목걸이 표현은 통일신라로 추정되는 부산시립박물관의 금동보살입상이나 북경고궁박물관 소장의 당대 보살좌상등 8-9세기의 보살상들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어 통일신라에서 계승된 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예는 적은 편이다. 무엇

보다도 가장 닳은 목걸이는 會寧閣 道劍山 北法城 출토로 전하는 東京藝術大學소장의 金銅菩薩立像이다(圖 15). 가슴 전면을 덮고 있는 큰 목걸이가 두줄의 연주문으로 이어지고 그 밑에 늘어진 수식이 이어지는 부분에 돌출한 원형의 장식이 있는 세부적인 모습도 거의 유사하며, 허리에서 몸 앞으로 내려오는 한줄의 영락도 통화 28년 보살상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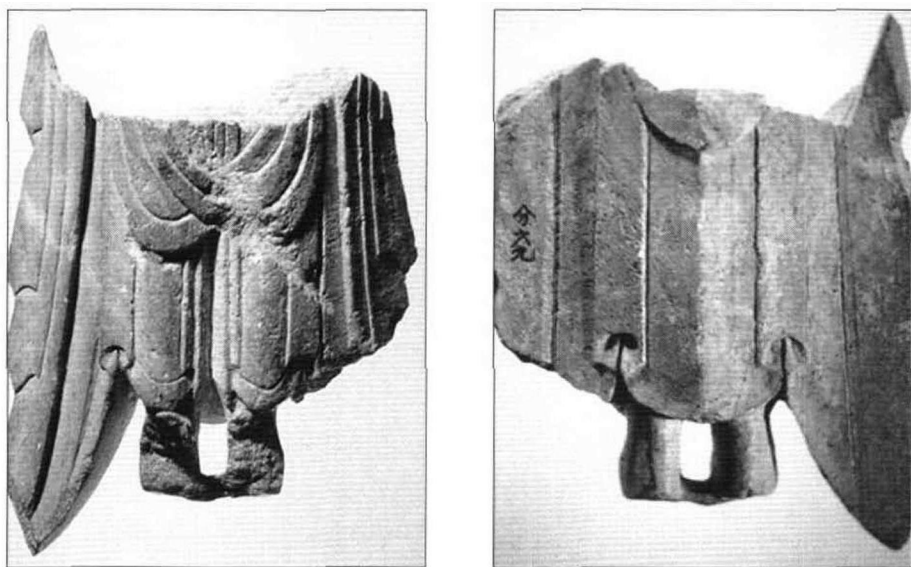


圖 14. 蟻石製菩薩像 하체파편 정면과 뒷면 백제 7세기, 錦城 朝王寺

東京藝術大學소장의 보살상은 이제까지 삼국시대 또는 발해나 고려시대의 보살상이 아닌가 하는 등 막연하게 이해되어 왔다.¹⁰⁾ 양 어깨를 감싸는 망토형의 천의라든지 三面寶冠 등에서 7세기 보살상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면서도 삼국시대 보살상과는 구별되는 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된 두 개의 U형에 줄이 길게 달린 목걸이의 표현은 일본에서는 7세기 말부터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이른 상이 통일신라이며 중국의 경우도 唐代 이후이다. 근엄한 얼굴표정이라든지 귀로 돌아가는 한가닥의 넓고 평평한 띠형 보발은(圖 15-1) 위에서 언급한 만원사와 국립박물관소장의 동조보살상을 비롯한 고려전기의 보살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몸에 두 번 가로 질러 양 팔에 늘어지는 천의자락이나 裳衣의 윗자락을 밖으로 내어 마치 앞치마 처럼 두른 모습은 7세기부터 시작하여 오랫동안 유행하였던 표현으로 경북 포항에 있는 寶鏡寺 소조보살입상 처럼 고려전기의 상에서도 발견되는 요소이다.¹¹⁾

10) 『東アジアの 金銅佛』(大和文華館, 1999), 圖 58, p. 141 도판 해설 참조.



圖 15. 金銅菩薩立像, 東京藝術大學



圖 15-1. 圖 15의 얼굴

따라서 동경예술대학 소장의 보살상은 통화 28년 보살입상과 같이 삼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려전기의 복고 양식을 보여 주는 보살상으로 이해된다.

통화28년명 보살상의 대좌형식은 높은 연받에 내림 연꽃이 피어 있고 그 밑으로 8각을 이루면서 투각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형식의 대좌는 그 예가 많지는 않으나 통일신라 8세기의 개인소장인 금동보살입상¹²⁾의 대좌와 기본적인 형식이 닮아 있어 전통적인 대좌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작품으로는 거창 상동 금동보살입상이 같은 계통의 대좌인데 낮고 납작해진 단순한 형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圖 16).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이 보살상들은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7세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신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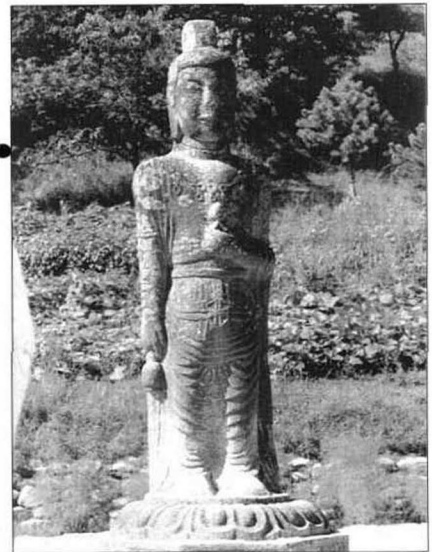


圖 16. 居昌 上洞 石造觀音菩薩立像, 高麗, 경남

11) 鄭恩雨, 「高麗初期 寶鏡寺 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의 一考察」, 『文化財』 26號(1993), p. 109, 사진 14, 17 참조.

12) 鄭恩雨, 앞의 논문, 『美術史論壇』 11호(한국미술연구소, 2001), 圖 13 참조.

고려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삼국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복고 양식으로 규정해도 좋을 것 같다. 특히 백제 보살상과 관련성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이 보살상의 조성 지역이 옛 백제 땅이었던 직산현이라는 가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Ⅲ. 高麗前期 對中交涉과 외래요소의 수용

고려전기 중국과의 대외교섭은 고려초기 오대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宋과 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高麗史』세가 11의 肅宗의 조서 중에 "... 북으로는 遼와 외교관계를 맺고 남으로는 송나라를 섬겨왔다..."는 말은 이를 대변해 준다. 물론 이밖에도 金과의 관계를 거론 할 수 있겠으나 양국간의 교류는 실제적인 문화교류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이다. 아마도 고려와 金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불교문화의 교류 또한 상당히 활발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고려전기의 불교문화는 역시 송이나 요와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이들 나라사이의 교섭의 빈도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지극히 부합되었던 11-12세기 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요와의 대외교섭과 고려전기의 보살상에 보이는 遼代의 외래요소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어서 宋과의 관계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 遼와의 대외교섭과 遼양식의 수용

1) 遼와의 대외교섭

고려와 요(907~1125)와의 관계는 건국초 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가장 밀접했던 시기는 3차례에 걸친 요와의 전쟁이 끝나는 1019년(顯宗11) 부터 1115년 요가 망하기 까지의 약 1세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려는 (表 1)에서 보듯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이 당시 양국 간의 교류는 1019년 이후 매년 6회에 걸쳐 왕래하던 전형적인 조공 관계와 더불어 正賀, 冬至, 生賀, 問侯使, 冊封使, 致祭使 등의 명목을 띠고 정기적으로 왕래하던 공식적인 사절단과 더불어 고려로 집단적으로 이주해 왔던 귀화자나 포로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表 1) 宋과 遼의 年號가 있는 高麗前期의 불교미술

명 칭	연 대	연호	소장처	비고
太平(興國)2年 廣州 藥師谷 마애여래좌상	977년	송	경기도 광주	
太平興國6年 마애보살상	981년	송	경기도 이천	
雍熙2年銘 마애보살좌상	985년	송	경북 고령군 개포동	
淳化 4年銘 壺	993년	송	이화여대박물관	
統和 24年 幢	1006년	요	속리산 법주사	현재 없음
統和 28年 天興寺銘 銅鐘	1010년	요	국립중앙박물관	
太平2年銘 獅子頻込寺址石塔	1022년	요	충북 제천	
太平 壬戌2年銘 平瓦片	1022년	요	원광대 박물관	
太平4年 甲子銘 승가굴내 석상	1024년	요	서울시 종로구	
咸雍 9年 엄사銘 飯子	1073년	요	국립중앙박물관	
大康 10年銘 法海寺명 飯子	1084년	요	일본	
大安 7年명 金仁寺명 飯子	1091년	요	내원사	
乾統 3年銘 중흥사 飯子	1103년	요	호암미술관	
乾統 9年銘 중림사 飯子	1109년	요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산출토

요의 귀화인 수는 睿宗代 (1105-1122)에는 수만에 달하였다 하며 그들은 대개 천민 계급에 소속되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그들의 기술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또 徐兢의 『高麗圖經』 卷 19 工技條에는 그들 중 우수한 자들을 뽑아 개경에 머물면서 공예 산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한다.

그런데 고려와 요와의 불교 문화의 교류를 기록상에 보이는 관계에 한정 시켜 보면 주로 대장경의 유입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거란대장경이나 불서가 고려에 전해진 것은 文宗17년(1063년)부터 睿宗17년(1122) 사이에 걸친 약 6회로서 이 시기는 요의 道宗과 天祚帝(1101-1125)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表 2 참조) 거란대장경의 유입은 한쪽만을 문화 민족으로 인식해 왔던 고려인들의 의식의 변화를 초래케 하였고, 고려 불교계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表 2) 고려전기 遼와의 불교문화 교류 기록

연 대	내용 및 출처
1049년	遼 왕실에 나전칠기를 선물로 보냄(『東國文獻備考』)
1063년 3월	요 道宗이 使者 파견하여 대장경을 보냈으므로 국왕이 法駕를 갖추고 西郊에서 맞이 함(『高麗史』卷 8, 世家 文宗17)
1072년 12월	요 도종 佛經 1藏 보냄(『遼史』도종기) - 청녕 8년 (1062년)으로 해석하기도 함
1099년 4월	요에서 사신 巢朗이 겸하여 대장경을 가져옴. (『高麗史』卷 11, 肅宗 4年)
文宗말년경 (11세기 후반)	고려에서 요에 불경을 보냄. 도종은 善知에게 명하고 교정하여 간행하게 함. (『遼史』本記 太康9년 11월 갑인조)
1100년 9월	金鐘 2구 주조하여 요에 보내고자 하나 받지 않음(『通史』)
1107년 정월	요 천조제가 高存壽를 보내어 생신을 하례하고 대장경 1부 보냄. (『高麗史』卷 12, 世家 睿宗 2年)
睿宗年間 (1105~1122초)	慧照國師가 조서 받고 중국에 유학승으로 갔다가 遼本대장경 3부 사서 귀국. 한 부는 定惠寺, 한 부는 해인사에, 한부는 參政宅에 보관(『三國遺事』卷3 塔像4 前後所將舍利條)
天祚帝 (1101-1125)	大藏經 諸宗疏草 6900여권 보냄(崔磁『補閑集』卷下, 靈通寺 大覺國師碑)

당시 고려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이 홍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편찬하던 시기로서(1085-1097) 송이나 일본 등지로 부터 자료를 모으고 부심하였던 시기이다. 이때 이미 없어진 경전들이 수록되어 있는거란대장경의 전래는 의천으로 하여금 요의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의천이 요의 道宗(1055-1101)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불서가 요에 전해져 편찬되는 등 양국 사이의 불교 문화의 교류는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¹³⁾

거란대장경의 유입은 한족만을 문화민족으로 인식해 왔던 당시 고려인들의 의식에 변화를 초래케 했을 것이며 따라서 고려 불교계를 크게 자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때 전해진 거란대장경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고려후기와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양인데 가령 고려후기의 圓鑑國師 冲止(1226-1292)는 당시 선원사에 있던 거란대장경을 극

13) 고려왕은 원효의 『起信論疏』를 도종에게 보내 주었는데 『遼史』本紀 太康9年 11日 甲寅條에 의하면 도종은 이를 애독하고 “詔僧知雙校高麗所進 佛經頒分之”라 하였다 한다.

찬하면서 이의 파손을 애석히 생각하고 이를 보수하여 松廣寺에 안치했는가 하면,¹⁴⁾ 1570년에는 거란대장경을 대본으로 무위산 安心寺의 약사경을 개판하기도 하였다.¹⁵⁾

2) 遼양식의 수용

요와의 불교문화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들어오는 영향은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을 통해서도 간취되는데 여래상에 보다 더 많은 예가 남아 있다.¹⁶⁾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보살좌상과 일본 關野貞 소장의 보살상도 양국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圖 17, 18). 관야정 소장의 보살상은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만 남아 있어 현재의 정확한 소재는 알 수 없다. 두 상에 표현되어 있는 공통된 특징은 원통형의 작은 보관과 보관 띠에서 시작하여 어깨 부근에서 하나의 작은 매듭을 형성하고 이어서 팔꿈치까지 늘어져 있는 양태와, 3단으로 형성된 낮은 팔각대좌를 들 수 있다. 상대는 二重의 앙련이 활짝 피어 있고 중대와 하대는 원형이나 팔각으로 이루어진 대좌 형식의 시원은 唐代이지만 五代를 거쳐 遼代에 크게 유행하였고 현재 10여구의 보살상이 알려져 있다.¹⁷⁾



圖 17. 金銅菩薩坐像, 高麗, 국립중앙박물관



圖 18. 金銅菩薩坐像, 高麗, 일본 關野貞

14) 釋宓菴, 「丹本大藏經叢疏」, 『東文選』 卷 112.

15) 神尾丈春, 「安心寺板藥師經」について, 『靑丘學叢』 7號(1932.2). pp. 118~122.

16) 鄭恩雨, 「遼代 佛像彫刻의 研究(II)」, 『美術史研究』 14(2000). pp. 91~95.

17) 鄭恩雨, 위의 논문, 『미술사연구』 14(2000). p. 68~71.

그 중 런던 대영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과 비교해 보면(圖 19), 보관에서 늘어진 매듭이 있는 관대, 동그란 얼굴, 3단으로 이루어진 대좌 형식이 거의 흡사하다. 요대의 불상 대좌는 三重연판이 많은 반면 고려시대에는 二重연판이 많은 편이다(插圖 1). 유사한 대좌로는 939년의 小倉(오쿠라콜렉션)의 금동보살좌상¹⁸⁾과 현화사7층석탑에 부조된 불상의 대좌를 들 수 있다(插圖 1-3). 939년 보살상은 한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상으로 고려시대의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玄化寺7층석탑은 현화사 창건시기인 1021년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11세기 초기에는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대 불상의 대좌에는 하단부에 雲龍轉珠紋이 조각되기도 하는데 일반 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요대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는 장식문양이다(插圖 2-3). 이 문양은 고려전기의 작품인 전남 장흥군 보림사 서부도의 기단부에 조각되어 있어 불교조각만이 아니라 불교미술 전반에



圖 19. 金銅菩薩坐像, 遼, 대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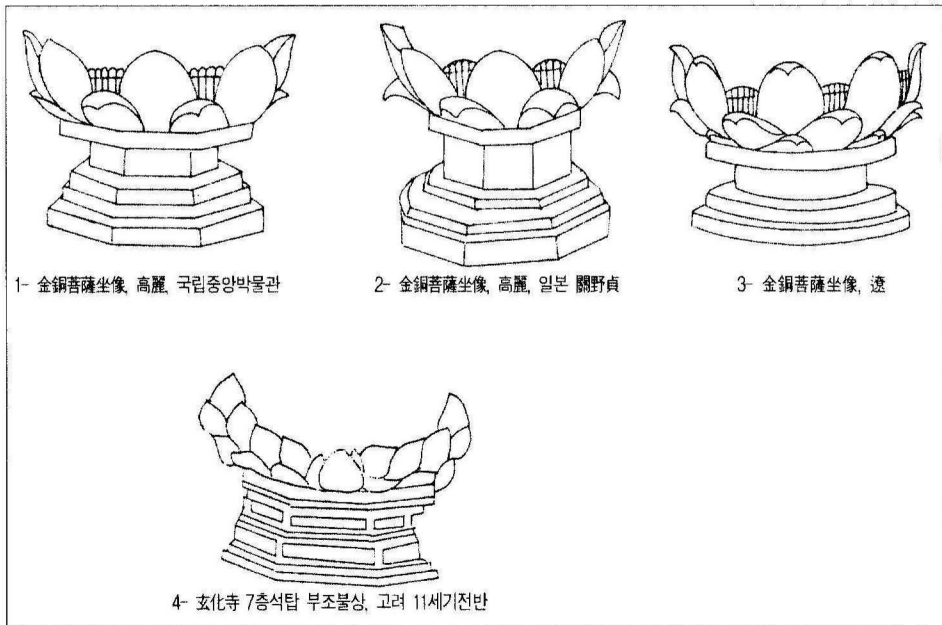


插圖 1. 高麗와 遼대의 불상 三段臺座

18) 松原三郎, 「五代・宋造像考」, 『美術研究』(1963), 圖版VI



圖 20. 寶林寺 西浮屠, 高麗, 전남 장흥군

걸쳐 나타나는 요대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圖 21, 插圖 2-1). 또 고려후기의 사리기나 불상 대좌의 기단부등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후대 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插圖2-2).

두 보살상이 쓰고 있는 보관은 작고 낮은 원통형으로 重熙 연간(1035~1042)에 조성된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의 한 石幢身佛像이나 中京白塔의 석조불상 등 遼代 불상의 보관과 비교된다.¹⁹⁾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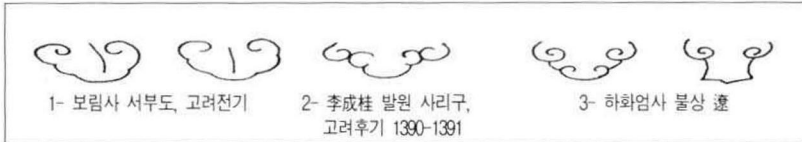


插圖 2. 高麗와 遼代의 雲龍轉珠紋

원통형 보관을 쓴 고려시대의 불상은 그 예가 많은 편으로, 개성시 개풍군 解線里에 있었던 石造菩薩立像, 靑岩寺 修道庵 石造佛坐像, 安國寺址三尊佛像의 脇侍菩薩立像²⁰⁾, 경기도 설성면 자성리 연화정사의 탑 안에서 출토된 塑造菩薩立像(插圖 3), 공주박물관 소장의 石造菩薩坐像과 石造菩薩立像등이 전한다.²¹⁾ 이 작품들은 명문이 없어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연화정사의 탑 안에서 출토된 소조보살입상은 金代 1201-1228연간의 동전이 같이 출토되어 13세기 이후에 만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즉 요와의 빈번한 교섭으로 유입되어 13세기 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는 새로운 보관 형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插圖 3. 塑造菩薩立像, 경기도 설성면 자성리 연화정사 탑내 출토

19) 鄭恩雨, 앞의 논문, 『미술사연구』 14 p. 90, 圖 71·72 참조.

20) 황수영 편저, 『國寶 4 - 石佛-』(藝耕, 1985), 圖 118, 149. 개풍군 해선리 석불상은 현재 개성시 방적동으로 이전되었다.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圖 164

21) 이 작품들은 보관을 쓰고 불상이 입는 통견식의 법의를 입고 있다. 공주박물관 소장의 석조보살좌상은 보관에 화불이 있고, 정암안사 석조보살상은 손에 연꽃 같은 지물을 들었는데, 불상인지 보살상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고려전기 석조불상 연구에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2. 宋과의 對外交渉 및 宋양식의 수용

1) 宋과의 대외교섭

고려와 송과의 외교관계는 이미 광종대(925~985)부터 있어 왔으나 요의 군사적 압력 때문에 1020년 단절되어 버렸다. 그러나 1072년 송의 간청에 의해 국교가 재개되면서 다시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²²⁾ 특히 송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고려의 진취적인 태도와 고려의 힘을 빌어 遼와 金の 세력을 견제코자 했던 宋의 입장이 잘 부합됨으로 해서 이후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빈번해진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송대의 조각양식을 고려로 전해지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表 3에서 보듯, 서구의 『高麗圖經』을 보면, 고려내의 대표적 사원중의 하나였던 興王寺의 夾紵佛像이 元豐年間(1078-1085)에 송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 하였다. 『高麗史』에는 睿宗13년(1118)에 송의 휘종이 安和寺에 塑造羅漢像을 하사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휘종이 안화사에 나한상을 보낸 사실은 李仁老의 『破閑集』에도 “안화사를 창건했다는 소식을 들은 宋황제가 특별히 使人을 파견하여 殿財로서 불상을 설치할 물건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 고려는 중국을 통해 불상 뿐만 아니라 그곳의 조각장까지 구해오고자 시도하였다. 熙寧 甲寅歲(1074년)에 사신으로 임송했던 김양감이 “畫塑之工”을 구하고자 함으로 이에 신종이 응할 자를 모집토록 했었던 것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당시에는 불상 뿐만 아니라 불화도 꽤 유입되고 있었던 듯 崔磁의 『補閑集』에 의하면 權敦禮의 祖父인 權學士가 중국에 들어가 벼슬을 지낸 뒤 귀국시에 관음상 1폭과 범화서답 1폭을 하사받아 왔다고 한다. 이처럼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11, 12세기의 송대 불상이 고려로 다수 전래되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밖에도 송의 황제가 고려 사절단에 하사했던 대장경이라든가 불전을 가져 온 것도 양국간의 불교문화를 보다 밀접하게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와 송과의 교류는 이와 같이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하는 경우와 함께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무역 또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당시 양국간의 관계가 대개 요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해 본다면,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의 왕래

22) 이 시기는 송과의 교류 중에서 2차 교류 시기에 해당한다. 고려와 송과의 교류 시기는 대체로 3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1차는 962년 경부터 994년 단교한 시기이며, 2차 교류는 다시 국교가 재개되어 1071년부터 북송이 망하기까지의 1126년 사이이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교를 재개했으면서도 송의 선진문물의 수입과 문화 수입을 받아들이는데 주력한 시기이며,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문화적인 교류관계가 전개되었다. 3차 교류는 1127- 1173년 사이로 남송과 고려사이의 교류로 급격한 쇠퇴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보다는 이러한 사무역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령 文宗 年間の 對宋關係를 살펴 보면 고려에서 송으로 건너간 사절단의 횡수가 4회인데 비해 송의 상선이 고려로 건너온 사무역의 경우는 39회나 된다.²³⁾ 이들 송의 상선들은 고려의 국가적인 불교행사였던 팔관회라든가 연등회 등을 중심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불교문화교섭상 무엇보다도 뜻 깊은 의의를 지닌다. 특히 당시 사무역을 주도했던 상인들은 이러한 행사에 때맞춰 도래하여 고려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전을 바치는 등 양국간의 불교 문화교류에 비중 큰 역할을 했다. 宣宗4년(1092) 新註華嚴經을 진상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²⁴⁾ 그리고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경우 이들 상인을 통해 淨源法師등 중국 강남지방의 고승들과 불서를 교류했는가 하며, 절강성 항주에서 경판을 새겨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강남승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 중국을 다녀 올 때 付法의 표적으로 불상을 받아오기도 했던 것이다.²⁵⁾ 이 밖에도 해상을 통한 사무역은 양국 사이를 왕래하는 승려들의 루트로도 적지않게 이용되었다.

獻宗元年(1095)에 고려에 온 慈恩宗 승려 惠珍은 송 상인 黃沖등 31인을 따라왔으며 대각국사 의천이 제자 壽介와 함께 몰래 入宋했던 것도 이러한 상선을 이용하였다.

사무역의 교통길은 唐代 부터 이용된 북방 루트 登州, 萊州가 계속 이용되었는데 이 루트는 후에 거란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1074년 이후 부터 많이 이용되었던 남방루트는 절강성과 복건성 즉 항주, 천주, 명주, 광주를 중심으로 충청, 전라도의 연안을 끼고 올라가는 길이다. 이 길을 통해 고려에 온 徐兢(1091-1153)은 1123년5. 16일 명주를 출발하여 6월 6일 군산에 입항하였다고 하여 군산 도착 이후 몇 차례의 영접의식을 거쳐 6월 12일 順天館에 도착하여 약 25일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귀환시에도 1123년 7월 15일 배에 올라 7월 24일

23) 이 시기는 고려와 북송간의 교류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 文宗9년(1055) 240여명의 송상인들을 오빈관, 영빈관, 칭하관등에 분산하여 머물게 하고 향연을 베풀었다고 하였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9年 2月條

24) 1087년 복건상인 徐愨은 고려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주에서 來注華嚴經을 조판한 바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며 인관이 이복되자 공공연하게 배로 실어다주고 후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소동파집』 奏議 제6론 高麗進奉狀 1089년 11월 3일: 『高麗史』 卷 10, 世家 10 宣宗4년조: 『高麗史節要』 卷6, 宣宗4年條) 소식은 그의 문집 “乞禁商旅過外國狀”에서 천주 해상이 불경 경판을 주조하여 고려에 박매하고 수개의 입송을 도와 준점과 관련하여 송 해상의 고려 왕래에 대한 안화를 비판하고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글을 쓰면서 고려와의 교역에 관한 5책을 논하기도 하였다.

25) 1085년 의천은 새로운 사조와 章疏의 수집을 목적으로 도송하였는데 송에서 귀국한 뒤에도 해상을 통하여 서신을 교환하고 불서의 증답을 계속하였으며, 헤인원에 대한 후원도 계속되었다. 의천의 귀국 뒤 선종과 인복태후는 靑紙에 금서한 화엄경 三譯本 170권을 헤인원에 배편으로 부쳤고, 숙종은 경각을 지을 비용을 함께 보내주기도 하였다. 1101년 의천이 죽은 후 숙종은 영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 편에 백금 천수백량을 보내 헤인원에 화엄경각 및 노사나불삼존과 불구 조성 비용을 보내었다. 헤인원은 1757년까지 高麗寺라고 불리웠다. 1089년 의천은 제자 壽介를 보내어 송황제와 태황 태후의 수를 빌기 위해 황금답 2좌를 보내었는데, 당시 항주 자사 소식은 그의 문집 권 30에서 “論高麗進奉狀”, “論高麗進奉第二狀”,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등의 글을 통해 황금답과 관련하여 그 부당함과 고려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表 3) 고려전기 宋과의 문화 교류 기록

연 대	내 용 및 출처
989년	고려 성종이 사자 如可를 송에 파견하여 조근하게 하고 동시에 대장경을 얻어오도록 하였다. 송 태종이 그의 청을 들어 紫衣를 하사하고 고려사신들과 함께 귀국하게 함(『宋史』高麗傳 雍熙3年)
991년 4월 10월	謝恩使 韓彦恭이 대장경을 요청하여 장경 481함 2500여권과 御製秘藏註, 逍遙詠, 蓮花心輪을 받아옴. (『高麗史』卷 93, 列傳, 韓彦恭) 사신 白思柔 파견하여 대장경 하사에 사의 포함
1019년 11월	崔元信이 송에서 金字 불경 1장을 구해 옴(『宋史』卷487 高麗傳 天禧3年, 『續資治通鑑長編』, 卷 94)
1021년	송에서 金字大藏經을 구하여 현화사에 두게함
1022년 2월	사신 韓祚(고주사)가 송으로부터 538권의 불전 가져옴
1022년 5월	韓祚가 송으로부터 귀국시 음양서, 지리책(성혜방), 釋典 대장경 1藏을 가져옴(참고- 송 지도연간(995-997)초 무주 개인사에서 대장경 각판 인쇄 무주장)
1074년	謝恩使로 입송한 金良鑑이 의약과 畫塑地工을 구하고자 함으로 神宗이 羅丞에게 지시하여 고려에 갈 기술자 모집(『宋史』卷 487, 高麗傳 熙寧 7년)
1077년	송 사신 왕래 위해 洪州 蘇大縣에 安興亭 창건
1078-1085 (元豐年間)	興王寺의 협저불상이 송으로 부터 전래(『高麗圖經』卷 17 王城內外諸寺 興王寺條)
1083년	송에서 대장경을 보내매 태자에게 명하여 맞이하게 하고 開國寺에 갈마두게 하고 도장을 설함
1089년	의천 수개등 제자 5인을 복건상인 徐微의 선편으로 항주에 보내 정원을 제사토록함. 송황제와 태황태후의 수를 빌기 위해 황금탑 2좌를 보냄.
1092년	신주화엄경 진상
1095년	송 자은종 승 惠珍 송 상인 황중등 31인을 따라옴
1098-1100 (元符년간)	藏經 宋에서 전래되어 홍왕사에 둠(『高麗圖經』卷 17 王城內外諸寺 興王寺條)
1110년 6월	女樂 2인 송 명주에서 국왕이 召見.
1101년	송에서 太平御覽 1천권 보냄(『高麗史』世家 11, 肅宗1) 숙종이 영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 편에 백금을 보내 해인원에 화엄경각 및 노사나불삼존과 불구 조성의 비용을 보냄.
1118년 4월	安和寺 중수, 송 휘종 법전에 쓸 재물과 화상을 보내고 能仁之殿扁額을 친서하고 소조나한 상 하사.(『新增東國輿地勝覽』4권 개성부 상 불우조)
1125년	韓若拙 사신으로 고려에 와서 왕의 진영 그림
연대미상	권돈례의 조부인 權學士가 중국에 들어가 벼슬을 지낸 뒤 귀국시에 관음상 1폭과 법화서탑 1폭을 하사받음(崔磁, 『補閑集』卷 下)

근산에 이르렀고 8월 27일에 명주 정해현에 도착하였다. 고려와 송과의 교류는 해로에 의해서만 교역이 이루어졌으나 배에 의해 막대한 물자를 이동할 수 있었음은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문화의 교류와 더불어 불교조각의 유입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려는 북송을 이은 남송(1125-1279)과도 정치적인 교류는 약화되었지만 상인을 통한 물품 교류는 계속되었다. 북송 政和연간인 1111-1117년 사이에 명주에 설치되었던 高麗使館²⁶⁾에서 마지막으로 고려사절단을 접대한 시기가 1136년이었던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 隆興2年(1164) 4월에는 마지막 고려사신이 명주에 들어와 조공할 것이라는 기록과 慶元연간(1195-1200)에 상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고려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宋史』 高麗傳의 내용을 끝으로 남송과 고려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나 사무역은 계속되어 隆興元年(1163, 毅宗 17) 叔姪의 맹약이후 남송때 고려에 온 상인의 횡수는 30회에, 그 수는 1864명에 달하였으며 고려여인과 결혼을 한 상인도 있었다.²⁷⁾ 眞靜國師가 절강성 寧波府 延慶寺의 천태종 승려와 유대 관계를 맺었던 사실도 13세기 까지 고려와 남송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음을 알려 준다.²⁸⁾ 남송의 상인들은 고려에 와서 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이해와 더불어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하였다.²⁹⁾ 1136년 高麗 持牒官 金稚圭가 명주에 와서 銀帛을 하사하였는데 그가 金의 간첩이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한다.³⁰⁾

지금까지 고려전기의 대송관계를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불교문화는 북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벌였으며 남송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 곳의 불상들이 고려로 전래케 되었다.

26) 명주의 高麗使館은 송 휘종황제가 6만幣를 하사하여 만든 국가 수준급의 사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臨月湖의 동쪽 寶奎港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寶慶四明志』 卷6, 市舶에 의하면 都將 樓昇이 명주에 부임한 1117년부터 이임했던 1122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송은 廣德湖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어 고려사절을 맞이하는 접대비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이후 고려 사관은 다른 곳에 사용되다가 1180년 史浩에게 하사되었고 그는 이를 백지로 만들어 寶奎精舍를 지었다고 한다. 許孟光, 「明州與高麗的交往以及高麗使館」, 『海交史研究』 (1995.2期 28期), pp. 38~40.

27) 朴漢男,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研究』 31輯, pp. 117~118.

28) 許興植, 『眞靜國師와 호산록』 (民族社, 1995), pp. 87~91 참조.

29) 姜吉仲, 「南宋과 高麗의 政治外交와 貿易關係에 대한 考察」, 『慶熙史學』 16.17(1991), 사무역 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고려와 금이 내통할 것을 염려하여 高宗 즉위후 迪功郎 胡諱를 假宗正少卿으로 삼아 고려국의 사신으로 임명하여 정탐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宋史』 高麗傳

30) 『宋史』 卷 487 高麗傳 紹興6年: 林士民, 「論宋元時期明州與高麗的友好交往」, 『海交史研究』 (1995.2期 28期), p. 40.

2) 宋양식의 수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전기 大宋交流에서의 풍부한 문헌기록에 비해 작품은 적은 편이어서 금동이 아닌 목조와 석조보살상도 포함하였다. 고려전기에는 새로운 자세를 한 보살상들이 있어 송대 불상과의 관련성을 보다 짙게 암시해 준다. 충남 서천군에서 발견된 동조보살좌상과 天龍寺址 출토의 금동보살좌상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圖 21, 22). 서천군 출토의 보살상은 조선고적도보에 도판으로만 전하는 상으로 현재의 소재는 모르며 세부적인 특징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천룡사는 경주 高位山에 있던 절로 고려전기 최승노의 손자 崔齊顔(?-1046)이 11세기 전반기에 중수한 절이고 이 절에서 1040년에 쓰여진 주지 임명에 대한 신서가 『三國遺事』 卷3, 塔像4. 天龍寺에 전한다.

두 보살상은 세부 표현이 간략하게 처리되어 투박한 느낌을 주는 개성적인 모습에 윤왕좌로 앉아 있다. 원래 왼쪽 다리를 수평으로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를 세운 다음 오른쪽 팔을 무릎 위로 가볍게 걸치고 왼쪽 팔은 무릎 뒤쪽의 바닥을 짚고 있는 자연스럽고도 편안한 포즈인데, 이 두 상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허리에 오른쪽과 왼쪽 무릎의 굽힌 각도가 거의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불안정한 감을 준다. 輪王坐는 북위시대의 도교상에서 처음 보이는 자세로 唐代에는 여의륜관음등이 앉는 독특한 자세로 발전된다. 당말 이후 수월관음 신앙과 연결되어 송대 관음보살상의 독특한 자세로 크게 유행하게 되어 섬서성과 사천성등의 석굴이나



圖 21. 銅造菩薩坐像, 高麗, 충남 舒川郡 西南面 출토



圖 22. 金銅菩薩坐像, 高麗, 天龍寺 출토

목조보살상에 많은 작품이 남아 있다(圖 23). 따라서 율왕좌 자세의 고려전기 보살상은 당 보다는 송을 통해 들어오는 외래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자세이지만 송대의 보살상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비해, 고려전기 보살상들은 자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드러낸다. 아직은 새로운 불상을 묘사함에 있어 이해부족과 함께 기술적인 세련이 뒷받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圖 23. 木造菩薩坐像, 宋

율왕좌와 더불어 송대에 유행했던 또 하나의 자세는 遊戲坐인데, 고려전기의 보살상 가운데 이 자세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일본 대마종가의 二代로서 대마를 통일한 宗重尙의 엄지불로 알려져 있는 대마도 嚴原町西里 万松院所장의 동조보살좌상은 14.8cm의 작은 상으로 왼발을 대좌 밑으로 내려 뜨린 모습의 유희좌 자세를 하었는데 통일신라 혹은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다(圖 24)³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목조에 채색을 한 관음보살좌상도 유희좌의 자세인데 고려전기의 상 가운데 목조가 매우 적고 양식적으로도 宋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국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圖 25).

遊戲坐는 서안에서 출토된 陝西省박물관 소장의 北魏 太昌元年(532)명 석조보살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른 시기의 예는 희귀한 편이며 唐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관음상의 독특한 자세로 유행하는 것은 역시 宋代 이후이다. 율왕좌와 마찬가지로 섬서성, 산서성, 사천성 등 광범위한 여러 지역의 보살상들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고려전기에 나타나는 율왕좌와 유희좌의 자세를 한 보살상들은 송과의 밀접한 교류에 따라 유입되어 조성된 상으로 짐작된다.

개성 근처의 천마산 觀音窟에 있는 2구의 대리석보살반가상은 금동불은 아니지만 宋代의 양식이 가장 많이 반영된 상이다(圖 26). 관음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관음굴을 중수하였고 건국후 왕실의 원당으로 삼으면서 유명해진 절로서 비교적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권 개성부 상 불우조에 의하면 “ 절 뒤에 바위 구멍이 집처럼 된 것이 있고 그 안에 관음불 두석상이 있어 그대로 이름한 것이다....광종대에 집을 짓고 태조

31) 『東アジアの佛たち』(奈良國立博物館, 1996), p. 243 참조. 대만고궁박물관 소장(구 新田소장)의 금동 관음보살좌상은 12.8cm의 크기에 宋代의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마도 보살상과 오른손을 뻗은 자세만 다를 뿐 거의 똑 같은 상이다. 앞으로 두상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金銅佛造像特展圖錄』(國立故宮博物院, 1987), 圖板 101 참조.



圖 24. 銅造菩薩坐像, 일본 대마도 嚴原町西里 万松院



圖 25. 木造菩薩坐像, 國立中央博物館

가 중건하였으며 이색이 기문을 지었다”고 하였다. 『陽村集』 卷 27에 실린 權近, 「觀音窟落成慶贊華嚴經疏」에도 역시 “...조선 태조의 원찰이었고, 절 뒤에 집과 같은 바위 구멍이 있다. 속에 관음상 둘이 있어 이로서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여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兪好仁의 『遊松都錄』에는 “절 뒤에 바위 끝이 활들 같이 된 모양이 지붕 같다. 밑에 석불 10여구 안치하였는데 금니는 떨어져 면목을 거의 알 수 없다.”³²⁾라고 하였다. 따라서 절의 창건은 고려 광종때인 10세기 후반경이며 조선 태조 이성계에 의해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중의 두 석불상은 현존하는 대리석 보살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후기에는 10여구의 석불들이 더 있었고 금색을 칠했음도 알 수 있다.

현재 이 상은 평양의 역사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있다. 보살상은 왼발을 굽힌 반가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며 식물 문양으로 장식된 사각형의 보관에는 화불이 있어 관음상임을 알 수 있다. 가슴에는 대각선으로 늘어진 천의를 입었으며 그 위로 번잡하고 무거운 장신구와 옷자락등이 무겁게 늘어서 있는데 돌의 질박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 목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32)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87), p. 245.



圖 26. 觀音窟 石造菩薩坐像, 高麗, 중앙역사 박물관



圖 27. 石造普賢菩薩坐像, 南宋, 大足石窟 北山 第136號窟



圖 28. 金銅菩薩立像,상해박물관
金銅菩薩立像,L.A county Museum



圖 28-1 金銅菩薩立像,L.A county Museum

긴 연꽃가지가 새겨진 사각형의 보관은 중국 사천성에 위치한 大足石刻의 보살상들에 보이는 송대 보살상의 새로운 요소이다(圖 27).³³⁾ 꽃잎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영락과 무늬 없는 단

순한 긴 줄로 이루어진 복잡하면서도 무겁게 늘어지는 여러겹의 영락 장식도 중국에서는 11-12세기의 보살상에 나타나는 요소로서 상해박물관과 미국 L.A. county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입상(圖 28)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송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들어오는 새로운 요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두가지 타일의 윤왕좌와 유희좌 자세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형식이 고려후기로 직접 계승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한 장식적이고 번잡한 장신구의 표현도 송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고려시대에는 북송만이 아니라 남송과의 교섭을 통하여 새로운 불상 양식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일본 長岐 金谷寺와 개인 소장자의 금동보살좌상 두 구³⁴⁾와 최근에 알려진 106.2cm 크기의 경북 안동 鳳停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이다(圖29).³⁵⁾ 봉정사 목조보살좌상은 1753년 개금을 하면서 雪峯堂大禪師 思旭이 쓴 大雄殿觀音改金懸板³⁶⁾과 상의 복장에서 나온

33) 옆면을 깎아서 각을 이루는 사각형 보관은 금동보살상 보다는 북송과 남송대의 대족석굴 보살상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뒷면을 볼 수 없어 사각형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北宋代の 작품으로는 北山 113, 125, 130호의 보살상들이 있다. 『中國大足石刻』 重慶出版社, 1991, p 37 참조.

34) 『高麗·李朝の 佛教美術展』(山口縣立美術館, 1997), 도 50, 51 참조

35) 봉정사 목조보살좌상은 가장 일찍 만들어진 목조불이며, 불상에서 복장이 나온 最古의 예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13세기의 서울 開運寺(鷲峰寺)아미타불상(1274년 혹은 1322년)이 복장이 있는 목조불로서는 가장 이른 예였으나 봉정사 보살상은 이보다 거의 70년 이상이나 앞서 조성된 목조불이며 복장이 나온 예가 된다. 고려시대에 목조불상 조성기록은 毅宗5年(1151) 4월 왕이 공장에게 명하여 침향목으로 관음상을 만들게해 내전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世家 17, 毅宗5年

36) 大雄殿觀音改金懸板

원래 一物이 있고 하나의 터끌이 처해 있고 六승으로 처해 있으며, 萬法에 王이, 三才에 주한다. 나의 迦文은 묘함을 얻어 세상에 전해져 三界에 獨尊한다. 人天을 스승으로 삼아 大地의 모든人を 존경하고 숭상하지 않음이 없다. 서역에서 시작해서 大夏(중국)에 이르렀고 조선에 이르러서 그 몇 년인지 헤아릴 수 없다. 鳳停에 이르러 新羅 古刹이래 法堂에 佛像三尊을 만들었다. 하나는 阿彌, 둘째는 觀音, 셋째는 勢至이다. 아미와 세지는 근래에 만들어 색상이 완전하고 觀音一尊은 금이 떨어져 쇠락해 졌다. 승사하여 매번 金으로 고치고자 하였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弘密老師 자신이 재산을 내어 그 뜻을 돕도록 하였는데 돈을 모아 새롭게 하여 3개월도 되지 않아 관음을 개금하였다. 그 옆에 8금강, 4보살, 제석천용등을 그려서 法界를 擁護하였다. 이는 불의 덕이고, 密의 정성이며, 閑의 공덕이고 王의 힘을 드러운 것이다. 물은 파도를 떠날 수 없고 파도는 불을 떠날 수 없으니 모두 菩提의 種子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덕망이 있고, 정성이 있고, 공덕이 있어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후세의 공훈을 밝히고자 해서 이 일을 기록한다. 乾隆十八 癸酉五月日 天燈山人 雪峯思旭識 대개 불상의 처음 시작은 承安四年이고, 大元至正二十四년에 처음으로 개금을 시작하였고, 지금 乾隆十六年에 다시 개금을 한다. (현관의 내용중에 大夏는 원래 西夏의 국호로서 1038년 趙元昊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大夏로 바꿨으나 여기서는 중국으로 번역하였다.)

原有一物, 處一塵, 圍六合, 王於萬法, 主於三才. 我迦文得其妙, 傳於世, 三界獨尊, 人天爲師, 盡大地人, 無不尊崇, 始於西域, 自大夏, 至於朝鮮, 不知其幾年, 大抵鳳停, 新羅古刹, 建法堂佛像三尊, 一曰阿彌, 二曰觀音, 三曰勢至. 阿彌·勢至, 近古創成, 相色完全, 觀音一尊, 脫金塵役, 合寺, 每欲改金, 而無人幹其事, 弘密老師, 略出己財, 使其佐旨閑, 慕緣重新, 不出三月, 改金觀音, 傍畫八金剛·四菩薩·帝釋天龍幘, 擁護

發願文³⁷⁾을 통하여 承安4년(1199)에 상이 처음 만들어졌고, 1363년과 1753(또는 1751년)년에 改金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그 예가 없는 12세기의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현판과 발원문은 모두 雪峰 思旭이라는 승려가 1753년에 쓴 것이지만 연대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³⁸⁾ 글씨체도 다르며 발원문 보다 현판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다.³⁹⁾

봉정사 목조보살좌상은 균형잡힌 불신에 근엄한 얼굴, 기둥같은 보계와 원형으로 겹쳐 어깨에 늘어진 보발이 독특하며, 通肩의 법의에 엄액의 왼쪽 끝에는 가장자리에 원형 장식이 달린 삼각꼴의 금구장식이 있으며, 상의를 묶은 매듭이 밑으로 느슨하게 늘어진 사각형이 연결된 벨트장식 그리고 화려한 영락등이 특징적이다. 현재의 보관은 후보인데 원래는 높은 보관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 가운데 머리에 높은 기둥 같은 보계와 귀 사이로 머리카락이 돌러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다른 한가닥의 머리카락이 어깨로 내려와 3개의 원형을

法界。此乃佛之德耶。密之誠耶。閑之功耶。施王之力耶。水不離波。波不離水。皆有菩提之種子。如是之德。如是之誠。如是之功。如是之力。使有志者。影助於後世。略以記之。乾隆十八癸酉五月日。天燈山人雪峯思旭識。蓋佛像初冊。在於承安四年。而厥後大元至正二十四年。始以改金。今於乾隆十六年。亦爲改金。

37) 願文

머리 숙여 조아려 따릅니다. 大慈 大悲 觀世音 구제하고 백성을 따릅니다. 중생을 널리 道하고, 諸佛의 本願은 불의 형상을 만들어 만대에 이어져 그 품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왕의 소원을 填하고 跋迹 芳塵하며 聖慈를 우러르고 마음으로 흠모한다. 내가 원을 세우고 여러 연분을 모아 다시 옛상을 중수하여 風化를 渴仰하고, 여러사람들의 願을 심으려 한다. 이전의 맹서를 어기지 않고 특별히 옷을 새로 입혀 드리오니, 國王大臣은 國治安民하고 太平無窮이다. 원컨대 우리들이 功發心하고 同志들이 동참하여 고뇌의 깊은 물에서 나와 菩提의 피안으로 건너가 소원의 바다로 들어가서 蓮臺에서 遊戲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禮에 이르른다.

稽首歸依。大慈大悲觀世音。拔濟滯溺。拯救沈流。廣度衆生。諸佛本願。造佛形象。萬代承事。種性不斷。填王所願。跋迹芳塵。景仰聖慈。心懷健美。唯我發願。博募諸緣。重修舊像。渴仰風化。植衆德願。不違襄誓。特垂加被。國王大臣。治國安民。太平無窮。願我同功發心。同志同參。出煩惱之深源。渡菩提之彼岸。同入願海。遊戲蓮臺。至心歸命禮。至心歸命禮。朝鮮國漢陽時三百六十一載。大清乾隆十八年癸酉五月日。重修改金觀音尊像。安于安東西面天燈山鳳停寺大雄殿。

高麗國大元至正二十三年癸卯閏三月二十一日改金。

天燈山人雪峯堂大禪師思旭述。

38) 현판과 발원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753년 개금불사를 하면서 설봉 선사(가)가 현판과 복장 발원문을 썼다. 至正24년과 乾隆16년에 걸쳐 두 번 개금을 했는데, 발원문과 현판의 기록에서 1~2년씩의 차이가 난다.

	불상조성	개금	개금	글
願文		至正23년(1363)	乾隆18(1753)	乾隆18(1753)
懸板	承安4년(1199)	至正24년(1364)	乾隆16(1751)	乾隆18(1753)

39) 현판의 내용을 통해 이 보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1) "3존불이 있었는데 아미타와 세지보살은 근대에 만들어 색상이 완전하고 관음은 금이 떨어져 쇠락했다."는 내용에서 홍밀선사의 주석 당시 예전부터 있던 관음에 아미타와 세지를 새로 만들어 아미타삼존불상을 만들었고 이때 관음의 개금분사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불상이 이 때 만든 본존불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개금을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고, 불사를 주도한 승려가 홍밀선사임을 밝혔다. 3) 개금시기만이 아니라 이 보살상을 처음 만든 시기가 승안 4년(1199)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圖 29. 鳳停寺 木造菩薩坐像, 高麗 1199년, 경북 안동



圖 30. 木造菩薩坐像, 南宋 1255년 이전, 京都 泉涌寺

이루며 겹쳐지고 다시 5가닥으로 흘러 자연스럽게 흘러 내린 보발등은 이 시기 처음 대두되는 새로운 형식으로 1255년 중국에서 가져온 京都 泉涌寺 관음보살좌상과 같이 남송대 보살상의 특징이다(圖 30).

봉정사 보살상에 보이는 기둥같은 높은 보계, 왼쪽 가슴에 달린 금구 장식, 화려하여 번잡하기까지 한 영락 장식등의 특징들은 12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후기 보살상의 한 양식으로 계승되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맺음 말

이상으로 고려전기의 금동보살상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삼국시대인 7세기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양식을 계승하면서 변형된 유형과, 송이나 요 등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수용된 외래요소 이를 통해 고려전기의 금동보살상도 前代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宋이나 遼와 같은 외부의 영향을 수용, 발전시키면서 새롭고 다양한 전통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삼국시대의 북고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인 統和 28年 銘 금동관음보살입상 수십년동안 중국불상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고려라는 올바른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상에 나타났던 북고 양식은 작품도 적고 11세기초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려 전기에 걸쳐 나타났던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흐르는 고구려 계승의식, 12-13세기 삼국부흥 운동을 기치로 내세웠던 지방민란 등의 시대적인 풍조가 불교조각에 구현된 최초의 예가 된다.

고려전기의 금동보살상은 그 수도 적고 명문에 의해 연대가 확인되는 예는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확한 양식의 변천과정이나 시기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명하지 못하였고 만족한 편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다만 넓게는 통일신라적인 요소를 계승한 상들이 몇 개의 예외는 있지만 10세기경으로 추정되며, 북고양식은 명문에서 보듯 11세기초에 나타나는 특수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송이나 요와 관련된 외래요소의 유입은 고려, 송, 요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11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당시의 중국과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불교 문화의 교류적 측면에 비해 외래요소를 지닌 보살상이 적은 점은 앞으로 좀더 새로운 작품의 발굴이나 출현에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절대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의해 명확하고 세분화된 편년 작업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불교 도상적인 문제, 석불이나 소조불과 같은 다른 재료와의 다양한 비교 연구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ABSTRACT]

A Study of Gilt-Bronze Images of the Early Koryŏ Dynasty

Jeong Eun-woo

Gilt-bronze Bodhisattva images of the early Koryŏ period (918-1231)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stylistic types. One is a traditional type, which is again divid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whether the stylistic source was the classical style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or an earlier style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the 7th century. The other is a type inspired by new stylistic influence from the Song (960-1279) or Liao (907-1125) of China.

Good examples of the classical type in the Unified Silla style are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images in the National Museum, Seoul and in Manganji temple in Japan. These two images are characterized by a round face with long straight-lined eyes, narrow shoulders with a long and narrow neck, a diagonally worn scarf, and an octagonal lotus-throne. Examples in the archaistic style of the 7th century could be seen in the three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s in the collection of Tokyo University. These three images are dated to 1010 by an inscription of the 28th year of Tonghua carved on the back of the pedestal. They are identified as the Bodhisattva Avalokiteśvara by a small Buddha in the headdress. A bottle and a lotus bud are held in each hand, and a scarf is worn crossing the body in an X-shaped pattern, the characteristics that remind one of Bodhisattva imag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7th century. Drapery also shows a similar pattern as the Bodhisattvas of the 7th century. However, it tends to be more decorative and complex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temporaneous Koryŏ style.

In the early Koryŏ dynasty trade with Song and Liao of China was undertaken in a vast scale, particularly during the 11th and 12th centuries. The Bodhisattva images that exhibit the influence from the Liao dynasty have a small cylindrical headdress, a band around the headdress crown hanging down all the way to the heels and a vertically-tripartite pedestal. Under the influence from the Northern Song, the distinct posture of the royal ease was also introduced. A four-angled crown and

heavy pendants are visible in a figure in the Avalokiteśvara Cave in Kaesŏng. The contact with the Southern Song brought another new type as seen in Bodhisattva figures in bronze at Kinkoku-ji temple, Nagasaki and a Bodhisattva in wood at Pongjŏng-sa dated to 1199. They have distinct feature such as a thick garment covering both shoulders, gold-metal ornaments on the underwear, and triangled drapes extended from end of the sleeves.

The extant gilt-bronze Bodhisattva images of the early Koryŏ period are scarce. Only one piece can be dated by an inscrip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know an exact developmental process in style. It is presumed that the classical type continued the Unified Silla style during the 10th century, and the archaistic type in the style of the 7th century appeared in the 11th century. New inspirations from China began to be felt from the 11th century onward.